

# 日 성마리아병원 호스피스 진료

한국기독교의료협회와 국제 관계를 통해 상호이념, 의료, 업무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이루고 있는 성마리아병원 호스피스센터의 담당전문의 Dr. 시마무라를 통해 일본의 호스피스센터의 운영실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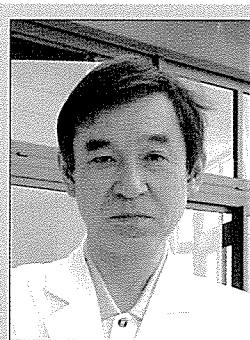
## 시 설

성마리아병원 호스피스는 1997. 9월에 ‘호스피스/완화 케어 병동’으로 진료를 시작, 현재는 병상수가 16개(각 실 8, 큰 병실 8)이고, 라운지(담화실), 기도실, 식당, 부엌, 바-카운터, 도서관, 가족대기실, 면담실, 욕실(7~8인 입욕가능), 흡연실, 전화 코너 등의 시설을 갖추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실은 실내에 샤워실, 화장실, 부엌, 냉장고, TV, 전화 등 개인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병실이 8개(추가비용-10,000엔/日)이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병실(차액 침대 이용료 필요 없음)이 2개(4병상/실) 있으며, 병실 내에 환자의 선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TV(유료), 간이냉장고 등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 교제의 장

환자를 진료하고 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시마무라 야스시

성마리아병원 호스피스 담당의

‘교제의 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일 1회 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그 외에도 1월의 신년회, 2월의 입춘 전날 축하행사, 2월 3~4일경 콩을 뿌려 잡귀를 쫓는 행사, 9월의 달맞이회, 12월의 크리스마스 파티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담당 의료진과 환자, 그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내용 구성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병동 내 간호사가 기안하며 자원봉사자의 협력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대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매주 월요일에 피아노 연주(그리운 초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노래나 연가를 부를 때에는 이 자리에서 노래를 직접 부르는 환자도 있음)를 하고, 화요일에는 다도회라고 칭하는 차·커피·홍차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며, 금요일에는 수예회, 매화나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꽃놀이를 진행하여 환자의 고통

과 극도의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 팀 구성

호스피스 케어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주기 위한 정성어린 보살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여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의 케어를 지속하는 것, 환자의 호소의 경청, 환자가 서슴 없이 자신이 고통(바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호스피스 진료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케어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마리아병원 호스피스 팀원을 보면 상근 의사 1명, 간호사 13명, 간호보조 1명, 개호복지사 1명, 겸임약제사 2명, 심리요법사 1명, 이학요법사 3명, 방문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리요법사의 존재는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분과 의료종사자의 마음의 케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학요법(재활)에 대한 환자의 니즈(needs)가 매우 높아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케어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과 달리 가족의 비탄·고뇌가 많은 병동이므로, 가족의 케어도 호스피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정서의 안정은 환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을 주저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요법사만이 아니라 자원봉사

자에게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유명을 달리한 후에도 이후 1년간 편지와 전화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유족회를 개최하여 신부와 주지스님의 강론을 듣기도 하고 가족간의 교류를 주선하기도 합니다.

### 케어의 질

최근 수년간 '케어의 질'이라는 용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케어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성마리아병원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상근 및 겸임 직원, 자원봉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입원 환자의 문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상근 직원만이 진행하는 분임토의(미니 콘퍼런스 칭함)를, 매월 1회, '반성회'라고 칭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동 내 스태프들의 진료 노하우 개선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 이용을 원할 경우는 예약을 받아 수용하고 있으며, 입원 전에 병동을 견학하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연락을 받아 일정을 정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외래환자는 본인 또는, 가족과 상담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환자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뢰서, 검사 데이터·X선 사진 등을 지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완화 케어 병동승인시설에 대한 호스피스

#### ·완화 케어 프로그램

후생성이 정한 '설치기준'에 준하여 후생장관 혹은 각 도·부·현 지사가 승인한 시설로써 완화 케어 병동 및 호스피스/완화 케어를 제

심리요법사의 존재는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분과 의료종사자의 마음의 케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받는 환자들과 케어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지침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호스피스/완화케어 병동연락협의회 1997. 1. 16)

### 1) 호스피스/완화 케어 기본 마인드

호스피스/완화 케어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말기에 있는 환자 및 가족의 Quality of Life(QOL)의 향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진행되는 의료행위를 의미하고, 환자와 가족이 보다 인간답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케어의 요점은 이하 5 항목이다.

-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에의 과정'에 경의를 표한다.
- 죽음을 앞당기거나 늦추지 않는다.
- 고통과 그 외 불편한 신체증상을 완화한다.
- 정신적·사회적인 원조를 행하고, 환자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살아있는 것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케어(영적 케어)를 행한다.
- 가족이 곤란을 겪을 때, 그것에 대처하려고 할 때, 환자가 요양 중일 때부터 사별한 후까지 가족을 지지한다.

### 2) 시설/프로그램 기준

호스피스/완화 케어 시설의 프로그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환자 및 가족에게 제공된다.

- 환자와 가족 : 호스피스/완화 케어는 환자와 그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제공되며, 환자와 가족도 모두가 독자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 입원의 조건 : 의사에 의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악성종양과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와 가족 또는 그 외의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과 달리  
가족의  
비탄·고뇌가  
많은 병동이므로,  
가족의 케어도  
호스피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원 시에 병명·병의 증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이 없는 경우, 빈곤한 경우, 특정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 등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케어 계획 : 케어 계획은 환자 및 가족과 상담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 제공한 케어에 관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진료관련 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다. 증상 완화와 케어에 관한 informed consent(정보공개)를 이해하고 사별 전부터 환자와의 가족 및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한 케어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 고통 등의 증상완화 : 적절한 치료법에 따라 고통과 불편한 증상을 완화한다. 증상완화는 환자와 가족이 가지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요구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쌍방이 인식하여 실행한다. 고통의 치료, 증상의 완화는 마지막에 쓴 참고자료를 참고한다.
- 팀 구성 : 진료팀은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팀 구성원은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교환을 행하며, 상호 협조하여 호스피스·완화 케어의 이념과 목적을 공유한다. 팀 운영은 계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를 지속하여 팀전체의 성장을 도모한다.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팀원의 일원이며 중요한 케어의 제공자이다. 자원봉사자의 참가는 자유의지에 따르며, 팀에 대해 역할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응분의 책임이

요구된다.

- 사별 후의 케어 : 사별 후의 케어는 환자가 요양 중일 때부터 시작하며 대상은 가족 및 환자의 친우 등이다. 특히 병적으로 비탄 중에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절한 전문가를 소개한다.
- 질의 확보와 활동의 평가 : 제공된 의료와 케어의 평가와 재평가가 될 것, 팀의 이상적인 자세와 프로그램 전반의 재평가가 될 것, 평가, 재평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각 시설의 책임에 두고 행할 것, 당 연락협의회에 제 3자를 포함시킨 위원회를 만들 것 등이다. 위원회는 각 시설에 대한 케어의 '질의 확보와 활동의 평가'에 대해 검토한 다음에 권고를 할 수가 있다.
- 기준의 개정과 위원회의 설치 : 이상의 기준은 당 협의회 회칙 6조 1항에 따라 협의를 세워 개정을 행할 수가 있다. '질의 확보와 활동의 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따로 제정한다.


### 맺음말

이상 성마리아 병원의 호스피스병동 운영실태와 국가기준을 소개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담당이사 입장에서 제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의 양국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호스피스 진료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  
빈곤한 경우,  
특정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 등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38p에서 이어짐


셋째, 중앙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와 서비스의 질을 평가, 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책을 개발할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넷째, 호스피스를 종교단체의 선교운동으로 이해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교차원의 운동으로 하는 호스피스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는 의료문제이며 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시작하여 정착하여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 47p에서 이어짐

사를 드릴 뿐이고 봉사를 통해 자신도 큰 보람을 느낀다.

호스피스 병동이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죽기 직전에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돌봄을 받는 곳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나는 이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삶이 평온하고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때 무한히 행복하다.

끝으로 내일은 하느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호스피스의 정신인 '기다림'과 '돌봄'이 함께하는 이 곳,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는 하느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조금이나마 호스피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런 아름다운 봉사의 장을 마련해주신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참고자료  
 세계보건기관편 : 암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제1판, 제2판)  
 후생성·일본의사회편 : 암 말기의료에 관한 케어 매뉴얼  
 세계보건기관전문위원회편 : 암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호스피스 케어